



27세 평원 씨의 야전군 출신 청렴 파트너, 김병도 감사실장

고객홍보팀

올해로 27세가 된 축평원에는 그를 이 자리에 있게 한 인생의 동반자들이 여럿 있다. 그중에서도 김병도 감사실장은 지원에서 작업장 중심으로 근무를 많이 한, 군대로 말하자면 야전군 출신이다. 때로는 날카로운 지적도 서슴지 않지만 축평원이 바른 길로, 더 승승장구해 나가길 바라며 바른말 하길 주저하지 않는다.

최근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며 더욱 바빠졌지만 축평원을 알자면 빼놓을 수 없는 김병도 감사실장을 만나 축평원과 그의 인연에 대한 이야기와 청탁금지법 대응과 관련한 조언을 들어보았다.

시기가 시기니만큼 꼭 보고 싶었습니다. 많이 바쁘시지요?

6월 30일자로 본원에 들어왔으니 이제 세종시 생활 5개월 차네요. 본원으로 오면서 지원 중심의 좁은 영역에서 우리 원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다양한 영역으로 역할을 넓혀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 사업과 경영의 수레바퀴가 오염되지 않고 깨끗하게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하면서 부정과 밀고 청렴과 가까운 지금의 기관 위상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991년 입사해 올해로 근속 26년 차인 것으로 압니다.

네, 이렇게 돌이켜 보니 무수한 일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이러한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닌 사회생활의 나이테로 쌓여 있음을 볼 때 축평원과 나름의 필연적 궁합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생활해 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축시 기억에 남는 근무 중 에피소드가 있다면 하나만 들려주세요.
경남의 부경축공에서 출장소장으로 근무한 2002년의 일입니다. 당시 부경축공에는 직영하는 식당이 있었는데, 출하주나 공판장을 찾는 모든 고객들에게 식사를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특히 새벽부터 출하축을 수송하기 위해 찾아온 출하자와 이른 아침 출근해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자들에게겐 시장을 달래고 휴식을 취하는 공간으로 늘 북적였습니다. 어느 날 생명과도 같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무료식사를 중단하고 식대를 지불하겠다고 작업장에 통보를 하는 순간 공판장께서 앞으로 서로 얼굴도 보지 말고 일하자고 화를 내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돌이켜 보면 저를 비롯한 직원들의 이러한 노력이 축평원을 대내외적으로 한 건의 불미스런 일 없이 아름다운 청년으로 성장한 현재 모습의 시금석이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실장다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웃음) 말이 나온 김에 여쭙자면, 청렴의 가장 큰 키워드가 '청탁금지법'이 된 요즘입니다. 공공기관으로서, 축산 관련 기관으로서 축평원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축평원도 많은 영향을 받아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간 여러 차례의 교육·회의를 거쳐으며 국민권익위원회나 농림축산식품부 감사관실 등 상위기관으로부터 시달되는 다양한 후속조치를 단행하고 내부 지침과 임직원 행동강령도 개정했습니다. 사내망에도 청탁금지법

코너를 신설해 전국 각지에서 근무하는 구성원들과 소통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식당, 화환 관련 업종, 시장에서는 일차적으로 찬바람이 불고 있어 생업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의 고통이 들리고 있지만 이 법의 취지대로 부정청탁이 근절되고 공직자 등의 생활 속에 내재화되어 정착된다면 국가경쟁력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편적 활동이 위축되거나 일상적 업무의 기피로 인해 개인과 기관의 역량이 위축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명하게 청탁금지법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자에게는 과태료나 형벌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징계가 행해져야 하기 때문에 조직생활을 하는 공공기관 직원 입장에서는 징계가 생각보다 위력이 크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선물은 반드시 반환하고 근거 확보가 용이한 불분명한 택배, 기프트콘도 신고하며 업무관계자와의 식사나 식사 후 카풀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식사나 차값은 각자 내기가 최선이라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2016년 하반기를 정말 분주하게 보내고 계시겠어요. 얼마 남지 않았습디다만, 혹시 ‘올해 이것만큼은 이뤄놓고 마무리 지으리라!’ 하는 계획이나 바람이 있으신가요?

기관의 부패척결 노력으로 측정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와 내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청렴도 조사가 있습니다. 그 결과, 타 공공기관과의 상대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고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도록 주어진 일들을 차근차근 수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끝으로 축산물품질평가원, 혹은 KAPE누리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축평원 가족들은 전국에 산재되어 업무를 수행하면서 열악한 환경을 감수하고 구성원들의 인내와 사명감으로 축산업의 발전과 농업농촌의 내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고객에게 무언가를 바라기 전에 고객이 알고 찾아주는 축산전문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오늘도 내일도 달리고 달려 나가겠습니다. ☺

